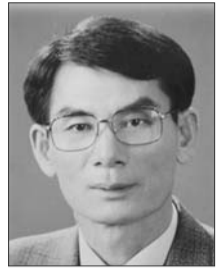


호매칼럼



이정랑 /중국고전평론가

인물론, 야만인의 파괴보다 문명인의 파괴가 더문제다

'양계초(梁啓超)' 청말민초의 중국의 언론인, 정치가, 저술가. 한국식 독음으로 양계초다. 그의 고향 말인 광둥어로는 링카이치우(Laihg kai-chiu). 1873년, 청나라 광둥성에서 태어났다. 수재(秀才)를 거쳐 15살에 향시(鄉試)에 합격 거인(舉人)이 되었다. 이때 베이징에서 내려온 감독관이 그의 총명함을 알고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해 주었는데, 베이징의 처가는 량치차오가 훗날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때 당장 의사소통부터 도움이 되었는데, 량치차오는 광둥어가 심해서 북경의 음식점에서 주문도 못할 정도였다.

량치차오는 향시에, 합격한 이후 강유웨이(康有爲)의 제자가 된다. 1898년 강유웨이와 함께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한다. 당시 겨우 25세였다. (광서제 항목 참조). 그러나 서태후 등 보수파의 쿠데타로 변법자강운동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후 1912년까지 14년 동안 중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망명 이후 강력한 서구식 근대화를 주장하며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叢報)' 등 잡지를 발행했는데 특히 신민총보는 3만 부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당대 중국의 최고 판매량을 갱신하기도 했다. 한편 1900년도 즈음에는 역시 일본에 망명 중이었던 쑨원(孫文)과 만났다. 일각에서는 두 거물 망명객이 힘을 합쳐 중국을 변화시키길 바랐고 량치차오도 이에 긍정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합작은 결국 실패했다. 강유웨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 데다가 량치차오는 1903년경부터 폭력적인 혁명이 중국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입헌군주제보다 좀 더 보수적인 개명전제(開明專制) 및 청

조 주도의 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등 온건한 개혁을 지향하였다. 신해혁명(청나라 멸망) 후에 40대로 인생의 절정기를 맞아 의회 운동의 당수, 사법 총장, 재무총장 등을 맡으며 잠시 위안스카이(袁世凱)와 연정하여 진보당을 이끌며 국회 내부의 정치를 이끌었다. 하지만 1913년 위안스카이가 송자오런(宋教仁) 암살 사건, 선후대 차관 사건을 연이어 일으키자 점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1914년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저지르고 1915년에 홍원제제를 선포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 하자 차이(蔡鐸), 탕자야오(唐繼堯), 리레권(李烈鈞) 등과 합세하여 호국전쟁을 주도했다. 이후에는 판치루이(段祺瑞)와 연합해 장춘복벽도 반대했고 재정총장을 맡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를 예측하고 로비를 통해 연합국 출세를 이루어냈으며, 결국 그 덕분에 파리 강화 회의에도 중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석했다. 그렇지만 이 여행 과정에서 유럽의 참상과 모순을 목격하고 오랫동안 신뢰해오던 사회진화론과 결별했다.

그러나 량치차오는 군벌의 난립으로 무력화된 중앙정부를 보고 회의를 느껴 결국 정계를 은퇴한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유럽 여행 도중 그는 총리 판치루이가 중국 남방 정벌을 위한 차관을 얻기 위해 일본에 청타오 등 산동의 이권을 넘겨주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는 5·4운동으로 이어져 북양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귀국 이후 정계를 은퇴한 량치차오는 저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에서 과학만능주의의 파산을 선언하며 "자연의 파괴보다 인간의 파괴가 더 심하고, 야만인의 파괴보다 문명인의 파괴가 더욱더 심하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가 사회진화론적 사상과 세계관과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은퇴 후 베이징, 톈진 일대에서 저술, 교육활동을 하다가 1929년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1042년 중화민국 건국 및 호국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중화민국 정부가 표창을 내렸다. 주요저서로 '신민설(新民說, 1902~1906)', '청대학술개론(淸代學術概論, 1920)' 등이 있다. 1899년 대한제국의 독립신문에

그의 '애국론'이 실리는 등 비슷한 시기에 독립협회 등에 참여했던 조 선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주자' 수준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이태리 건국 삼걸전(意大利建國三傑傳)', '월남망국사' 같은 책들은 신채호가 번역했고, 훗날 일제가 금서처분했다. 참고로 일제가 태웠다는 20만 권 역사서 책들의 금서들이 이 책들이 포함되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약 1300만 자에 달하는데 그중 10% 정도는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라고 한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기에 사망 직후 그의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예상대로 량치차오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보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아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 사관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군주제혁파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화파로 대세가 기울자 공화정 지지로 입장을 선회한 했지만, 대세에 따르는 것 정도로 보아야 한다.

당대의 그는 한국에서 양계초라고 널리 알려졌고, 이후의 교과서에도 양계초로 자주 등장한다. 그가 활약했던 시기가 신해혁명 이전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계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에 태어나거나 신해혁명 이후에도 생존한 중국인들의 인명을 현대 표준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옮기는 관례 때문에 량치차오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참고로 '음방실문집'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인의 민족성을 엄정 혹독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선사람은 화를 잘 내고 일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한번 모욕을 받으면 곧 팔을 걷어올리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 성내는 얼마 안 가서 그치고 만다. 한번 그치면, 곧 이미 죽은 뱀처럼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조선 사람은 미래의 관념에 대하여 매우 박약하다. 소민(小民)은 한번 배부르면 서로 두 셋이서 짝을 지어 차(茶)를 다리며 나무 그늘에 쉬면서 한담(閑談)으로 날을 보낸다. 다시 내일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까 하는 생계문제를 계획하지 않고 유유하게 고대(古代) 태평시대의 사람과도 같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 시 대피먼저' 우리집 피난시설 확인

주거실태조사서(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동주택 거주자는 62.6%,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 순이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층수가 높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층수가 낮은 아파트, 층수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좋은 아파트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화재는 다른 건물 화재와는 다르게, 인근 세대로 쉽게 화재가 확대되고, 연기가 급속히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난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 집에 어떠한 피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미리 파악하고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예에 익혀야 정말 긴급하게 피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피난 시설에는 몸에 맞출을 매고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이루어져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해 긴급 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으로 이루어져 화재를 막아주는 대피공간 등이 있다. 하지만 피난 시설은 아파트마다, 동별마다, 층별마다 상이하게 설치

돼, 평소 어떠한 피난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유사시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집에 어떠한 피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해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간에 물건을 적치해두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는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

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연 우리 집에는 어떠한 피난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든 가족이 미리 알아두어 화재발생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봉성영(광광소방서 예방안전과)

빗길 교통사고, 안전하게 예방하자

도로교통공단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 사고건수(1만1197명, 15.7%)와 사망자 수(220명, 1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주행 시 굽은 도로(커브길)에서의 도로이탈이나 수막현상으로

인한 전도·전복 등 빗길 교통안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간거리 평소보다 2배 이상 넉넉하게 잡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자. 둘째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전한다. 제동거리가 평소의 2배가량 길어진 다. 급제동과 급정지는 자제하자. 셋째 전조등을 켜다. 비가 오면 시

야 확보가 어려워 전조등으로 존재를 알리자. 넷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 한다. 기온이 낮아져 타이어 공기압이 약해진다. 다섯째 와이퍼 상태를 점검한다. 와이퍼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여섯째 자동차 배터리를 점검한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빠르게 닳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외에 보행자는 눈에 띄는 밝은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기,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제 등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철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자. /양영은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amaeil.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집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차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말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m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상 무...381-531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등 문...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보 성...010-3626-4776 무 안...010-9271-8517 순 천...010-9656-1383 화 순...010-2430-5055 여 수...010-8587-2288 광 양...010-9656-1383 영 광...010-9860-5489 함 평...010-4132-8080 나 주...010-3644-7272 완 도...010-5066-4708 완 도...010-4604-3742 영 암...010-4604-3742 나 주...010-3644-1309 장 흥...010-5665-8354 장 흥...010-5665-8354 진 도...010-8525-4567 담 양...010-3602-3550 신 안...010-4217-9480 해 남...010-3471-6542 곡 성...010-3647-6161 강 진...010-3775-2369 고 흥...010-7175-3500 구 레...010-8979-0053 장 성...010-3610-7824 광 산...010-7613-4320